“백중 의미 ‘부모은중경’ 사경으로 되새겼죠”

달마사 청년회 ‘달마지기’ 회원
백중 맞아 49일간 사경 정진해
8월 18일 사경 정진 회향법회
네이버 인증제 도입, 사경 독려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달마사 청년회(달마지기)가 우란분절(백중) 기간 동안 부모은중경 사경에 참여했다. 사진은 지도법사 혜력 스님과 함께한 청년회원들 모습.

달마사 2030세대 불자 청년들이 우란분절(백중)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부모은중경〉 사경 정진을 진행해 눈길을 끈다.

서울 달마사 청년회(지도법사 혜력 스님, 이하 달마지기)는 경내 참선방에서 7월 1일부터 〈부모은중경〉을 사경하고, 백중인 8월 18일에 회향식을 봉행했다. 사경 정진에는 지도법사 혜력 스님을 포함한 2명의 스님과 13명의 청년불자 등 총 15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했다.

불교 5대 명절 중 하나인 우란분절은 음력 7월 15일에 행해지는 의례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재(齋)를 베풀며 부모와 조상의 은혜를 기리는 행사다. 이 연원은 〈우란분경〉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부처님의 제자인 목련존자가 아귀지옥에서 고생하는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 부처님의 말씀대로 승가대중에게 공양을 올렸고, 어머니는 지옥에서 벗어나 무량한 복락을 받게 됐다. 이번 백중 사경 정진도 부모님의 은덕을 기리며 효의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경 수행을 기획한 정재현 달마지기 청년회 회장(23)은 “청년들은 학교, 직장생활 등으로 매주 사찰을 방문해 백중 기도하기 어렵다. 이에 〈부모은중경〉 사경을 기획해 장소·시간과 상관없이 부모님·조상님들의 은덕을 기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특히 MZ세대의 ‘챌린지’ 열풍을 벤치마킹, 네이버 밴드 인증제와 우수 사경자 시상을 도입, 사경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경 회향 법회는 오후 3시 경내 참선방에서 개최됐다. 지도법사 혜력 스님이 집전을 맡아 △삼귀의 △반야심경 △108배 참회 △우수사경자 시상 △소지식(燒紙式, 사경집을 태우며 공덕을 회향하는 의식) △회향법문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우수 사경자로는 △이진영(49일) △정재현·임영서·장순헌(47일)이 선정돼, 백화점 상품권을 경품으로 받았다.

지도법사 혜력 스님은 회향법문을 통해 “오늘은 49일간의 사경으로 생긴 공덕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는 날”이라며 “사경집을 태우는 소지식을 행하면서 사경 공덕이 인연 영가에게도 닿을 것이다. 사경하면서 느꼈던 조상과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마음에 잘 새기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경 수행을 참여한 이진영(32) 씨는 “불자지만 수행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 사경에 참여했다”며 참여 계기를 밝혔다. 그는 “〈부모은중경〉에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하고 출산하기까지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사경하면서 부모님의 은혜와 노고를 다시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경 회향 법회에 앞서 경내 대웅전에서는 백중 회향 법회가 진행됐다. 달마사 주지 일행 스님은 법상에 올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가족, 선망조상영가 등 주변 인연을 위해 3달간 정진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나와 남 구분 없이, 모든 인연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보라”고 당부했다.

2024 불교도대법회 기금 전달 잇따라

봉국사 · 장안사 각 1000만원



‘2024 불교도대법회’의 원만개최를 발원하는 사찰들의 기금 전달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봉국사(주지 현근 스님)〈사진〉와 장안사(주지 성화 스님, 조계종 총무부장)는 여법한 불교도대법회 개최를 발원하며 각각 10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봉국사 주지 현근 스님은 “불교도대법회를 위해 신도회와 마음을 모으게 됐다”며 “이번 전달식을 계기로 불교도대법회에 불교계 내외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사찰들의 기금 전달에 감사하며 “불교도대법회 성공개최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김가령 기자

“이승만기념관 송현광장 추진 죄송”

오세훈 시장, 8월 22일 태고종 승려연수교육 참석해 사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이승만기념관을 송현녹지광장에 건립 추진하려 한 데 대해 태고종 지도부와 대중스님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오 시장은 8월 22일 오후 1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3층 법륜사 대웅보전에서 봉행된 전국 승려·전법사(교임) 연수교육 입재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이승만기념관 건립 추진경과를 간략히 언급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이승만기념관 송현녹지광장 건립 추진은 제 뜻과는 달리 진행됐다”며 “그렇다 해도 추진 기간 중 스님들께 폐를 끼친 데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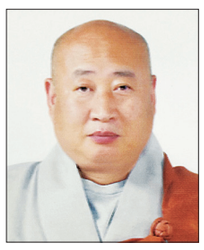
“이승만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가 태고종의 반대 입장을 알고 장소를 송현녹지광장이 아닌 용산으로 결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오 시장은 “송현녹지광장은 비워두는 게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이라는 게 평소 저의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태고종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명의로 8월 14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승만기념관 건립 자체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진 스님은 “이승만 전 대통령은 종교편향뿐만 아니라 3·15부정선거에 따른 잘못된 국정운영으로 민주주의 원칙을 깨뜨린 장본인으로서 국민들과 4·19의거에 의해 물러난 인물”이라며 “그런 점에서 우리 종단과 불교인도 각각 국민의 한 사람로서 이승만기념관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신중일 기자

금산사 종회의원 덕림 스님 선출

단독후보 무투표 확정



조계종 17교구 금산사(주지 화평 스님) 종회의원에 덕림스님이 선출됐다.

덕림 스님은 함께 입후보했던 산성 스님이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단독후보로 남게 돼 무투표 당선을 확정지었다.

덕림 스님은 월주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1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4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중앙승가대 총무처장, 금산사 포교·사회·호법국장을 역임했다. 현재 지구촌공생회 사무총장과 금산사 부주지 및 익산 관음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신구의 삼업청정으로 고락서 벗어나라”

진우 스님, 8월 18일 봉은사서 법문
백중 의미 설명…“분별심 없애라”


진우 스님은 8월 18일 봉은사에서 봉행된 하안거 해제법회에서 대중들에게 분별심을 내려놓을 것을 강조했다.

“어떻게 하면 지옥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스스로 신구의 삼업(身口意 三業)을 청정하게 할 때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8월 18일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 법왕루에서 봉행된 ‘백중 회향 및 하안거 해제법회’ 초청 법사로 법상에 올라 우란분절(백중)의 의미와 불자의 덕목에 대해 법문했다.

더운 날씨에도 이날 법회에는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운집해 진우 스님의 백중 회향 법문을 들었다.

먼저 진우 스님은 대중에게 백중의 의미를 설했다. 이어 “백중날 대중은 스님에게 보시하고 보시받은 스님들은 영가에게 염불로 법문을 들려준다”며 “이로써 영가들이 스스로 깨닫고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백중 회향의 의미를 짚었다.

진우 스님은 법회 참석 대중들에게 분별심을 내려놓고 고락(苦樂)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했다. 스님은 “불자들은 스스로 감정의 호오(好惡)과 분별심을 없애 고락에서 벗어나고 모든 인연에게 좋은 복락을 짓길 발원해야한다”면서 “불자들 모두가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는 길에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비추며 영향을 받는 인드라망처럼 모두 연기적으로 연결된 존재”라면서 “내 자신이 먼저 분별심이라는 고락에서 벗어나야 영가들도 괴로움에서 벗어나 삼악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가령 기자

해인사 문도협, 문도 대표 제1차 간담회

8월 19일 “수행 가풍 회복 노력”

해인사 문도협의회는 8월 19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 1층에서 ‘해인총림 문도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동참한 90여 스님들은 해인사 관련 추문으로 인한 승풍실추 책임을 묻고 해인사 승가의 위상을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진각 스님은 경과 보고를 설명하며 “해인사 문도협의회는 수행 가풍을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며 결의를 전했다.

이어진 승가의 위상을 바로 세우자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성법 스님은 “해인사가 현재 잡음과 추문에 휩싸였는데 종지를 모아 해인사의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성 스님은 “옛 위상을 되찾고 큰 스님들이 계셨던 해인사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으며, 종묵 스님은 “종지를 모아 하루빨리 해인사가 안정되고 수행 가풍을 되살리자”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재오픈!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이 새 단장을 마치고
다채로운 전시와 쾌적한 체험 공간으로
다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새롭게 문을 연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
더욱 특별한 사찰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

재오픈 기념 이벤트 (9월 한달간)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무료 음료 나눔을!
수강생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9 안국빌딩 신관 2층
(안국역 1번 출구)

02-733-4650

info@templestay.com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 하차